

[오피니언]

특별기고

우제길



요사이 서울 나들이를 자주 하면서 그곳 미술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못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광주비엔날레 감독임명 등으로 빛어진 일련의 사태들 때문이었다.

'신정아 사태' 뼈아픈 반성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시작된 이래 지금 광주 시내 골목 구석구석까지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도록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던

가. 과연 엄청난 기금을 쏟아 부으면서 진행되는 우리들의 비엔날레가 베니스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 등과 얼마나 어

명품 광주비엔날레를

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위치는 확실히 세계가 인정할 정도의 수준은 되었는가. 그리고 세계의 미술가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의미있는 기획들이 이뤄졌는가? 등등.

술의 새로운 세계와 가능성을 인류에게 제시하는 대표적인 현대미술축제다. 그런 만큼 새로 꾸러질 이사회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이번 사태를 수습함과 동시에 광주비엔날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이사들의 막중한 임무가 될 것이다.

미술 경향과 비엔날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 광주비엔날레를 세계 굴지의 비엔날레로 다시 탄생시켜야 할 것이다.

날레 행사 내용에 있어서 하나만 지적을 한다면, 매회 동원된 학생들의 숫자로 성공 여부를 가늠하면서 자족하며 안주한 부끄러운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니었던가.

문화수도 금지 살려야

이번 사건으로 야기된 뼈아픈 상처를 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 크게, 멀리 보고 비엔날레의 미래를 담보하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싶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권영



올해 9월 조선대병원 내에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전문 스포츠 재활센터가 개설된다.

스포츠 재활센터에서는 뇌졸중이나 뇌손상 후에 나타나는 장애 및 스포츠 손상·사고로 인해 신경·근골격계(무릎이나 발목·허리·어깨·팔꿈치 등)수술을 받은 이후에 재활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다.

치가 안전하게 이뤄질 때 성공할 수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신체 손상이 발생할 때 기본적으로 운동 종목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손상으로만 인식하고 이에 따른 판단을 내린다면 당장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른다.

스포츠 재활은 일반인에게도 효과적

이 치료는 ▲재활의학과 의사 ▲스포츠 생체 역학 전문가 ▲운동 처방사 ▲운동 지도사 ▲운동 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한 팀이 돼 이뤄진다.

스포츠 재활의 목표는 운동선수의 경우 하루빨리 연습에 복귀, 시합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상부위의 뼈·관절·인대·힘줄 등이 약화된 상태이거나 충분한 기능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운동 연습이나 시합을 할 경우 더 심한 부상의 위험을 안게 된다.

또 쉽게 재손상을 초래해 더 심각한 신경·근육조직의 파괴를 가져와 기능의 상실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운동손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무엇보다도 여러 각도에서 손상에 대한 처

는 방법을 고려, 재활 트레이닝을 해야 성공적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스포츠 재활은 운동선수만이 아닌 일반인의 근골격계의 손상 후 운동을 통해 재활을 하는 방식으로 물리치료·재활 도수치료·근력 운동치료 등을 통해 손상을 입은 측과 정상 측의 ▲근육 균형 개선 ▲신경근 조절운동 ▲기능적 운동 ▲운동 가동범위의 확보 ▲유연성 증진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 등의 스포츠재활 프로그램을 해 손상을 입기 전의 상태로의 최대한 빠른 복귀를 도와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손상 후 관리를 위해 물리치료·운동치료 등으로만 최상의 재활을 할 수 없어 스포츠재활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도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발생한 근육·인대·힘줄·관절 등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조선대병원 스포츠 재활센터장)

'죽음의 도로' 오명 88고속도로 확장 더이상 미루지 말라

최근 88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100억 원만 반영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총 공사비는 2조원, 100억원을 주고 공사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아니다.

88고속도로는 광주~대구 방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국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왕복 2차로인 도로다.

442명이 숨졌다고 한다. '공포의 고속도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은 개통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여지껏 따라다닌다.

88고속도로는 과거 호남-영남 화해의 고속도로라고 불리우며 착공, 완공된 도로다.

▲유일속·광주시 동구 수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 지급합니다.

◆독자 사진



입주 2년도 안돼 흉물로 변한 전남도청사

지난 2005년 완공해 입주한 지 2년도 못돼 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나간 전남도청사. 흉물스럽게 떨어져 나간 외벽이 도민들의 눈길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조현욱·광주시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104동 504호

휴대전화 등 IT 기기 걸고 다니면 목·어깨 통증 유발

최근 학생들 중 휴대전화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인도 비슷하다.

휴대전화 뿐 아니라 신분증에 PDA·MP3 등 목에 걸고 다니는 IT 기기도 아주 다양하다.

목에 휴대전화가 달린 줄을 걸고 근육 긴장도를 측정하는 근전도 실험을 해 봤더니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목근육이 긴장하는 것이 현격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목을 수그리게 되면 목과 어깨근육에 긴장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목에 매게 되면 무게로 인해 목과 어깨의 근육의 긴장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

이 때문에 목과 어깨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특정 부위에 장시간 긴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컴퓨터 작업이나 책을 읽을 때는 되도록이면 잠시 벗어놓고 있는 게 좋다.

▲최인우·광주시 북구 청풍동

시설

美산 쇠고기 '척추뼈' 발견 안전 문제 없나

최근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일 "지난달 29일 수입된 1천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돼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RM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로서 뇌, 내장, 척수가 이에 해당된다. 지난 85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광우병은 소는 물론 인간에게도 치사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12월 수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10월 말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 9

개월 동안 수입위생 조건을 15차례나 위반해 미국의 수출 검역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이번엔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뼈까지 발견돼 미국 수출 검역체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SRM이 발견되면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검역당국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역만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이번 척추뼈 발견에 대해 신속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나신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안전관리 허점 드러낸 현대삼호중공업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중에 크레인이 넘어지는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1일 현대삼호중공업 제1도크 대조립부 작업장에서 대형 크레인 3대가 잇따라 넘어졌다.

세계 5위의 대형 조선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수백대의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는 대형 작업은 조그만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측의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그렇듯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관리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현대삼호중은 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취재팀 등 외부인의 공장 출입을 전면 금지시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하다. 지난 6월 노동부가 전국 사업장 1천8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94.8%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현대삼호중은 이번 사고를 전반적인 안전체계 점검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암울했던 80년대, MT를 핑계로 곤잘 신지 명사십리(鳴沙十里) 해수욕장을 찾곤 했다.

추억의 한 편을 차지한 명사십리가 울여름 다시 '피서 뉴스'의 중심에 떠올라 반갑다.

원을 들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바다가 보이는 민박단지를 조성했다고 한다.

명사십리의 추억



적어도 그 순간엔, 독재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말들이 없었다. 새벽녘엔 갓 잡은 돔·우럭·넙치·농어...를 사서 회를 뜨고 매운탕을 끓여 다시 '부어라 마세라'를 반복하다 고꾸라졌다.

“해수욕장은 젊음의 상징이다. 물, 모래, 관, 집, 술밭, 보트, 그 모든 것의 위에 나는 커다란 '힘'을 보았다”라고 썼던 것도 그런 연유이리라.

추억의 한 편을 차지한 명사십리가 울여름 다시 '피서 뉴스'의 중심에 떠올라 반갑다.

원을 들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바다가 보이는 민박단지를 조성했다고 한다.

명사십리의 추억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information.